

韓 日 中

기생충 관리 대책회의<F>

參加記

元 容 福

기협 본부 조사연구과장



학생집단검진결과 회충의 전국 평균 감염률을 보면 0.79%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이 채소를 생식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매개성 유충류의 관리는 우리보다 훨씬 수월한 것 같았다. 나는 우리가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재감염의 기회가 많아서 앞으로는 감염률의 저하가 다소 둔화될 것이며 학생집단검사의 회수에 대한 학회 연구보고내용 즉 년2회 검사를 당분간 계속하지 않으면 감염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침 이 자리에는 이사인 대만성위 생처 부처장 劉尚修씨와 전 대만성위 생처장 胡惠德씨, 전염병연구소장 曹栢村씨가 참석했기 때문에 간흡충관리문제를 거듭 설명하고 건강관리협회를 병설하여 예방의학사업에 착수했다고 하자 대만도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번 해외연수가 이웃나라의 보건관리실태를 살펴봄으로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보다 많은 인력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